

## 무대 위 네 작가

March, 2016



### 무대 위 네 작가

매년 미술계 안팎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2016' 후보가 발표됐다. 주인공은 김을, 백승우, 함경아,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인물로 선정된 네 작가는 특히 지난해에 왕성하게 활동했다. 김을 작가는 LA의 백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Why Drawing Comes from the West〉를, 함경아 작가는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 〈유령의 발자국〉을, 그리고 백승우 작가와 믹스라이스는 각각 밴쿠버 비엔날레와 샤프자 비엔날레에 참가해 고유의 독창적 작품 세계를 다양한 형식과 신선한 주제로 선보이며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를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에게 아낌없이 알렸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전 이스탄불 비엔날레 예술감독 캐럴린 크리스토프 바카르기에프, 상하이 하오 아트 뮤지엄 관장 윤재갑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후보로 선정된 작가는 앞으로 7개월간 미술관과 긴밀하게 협업한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한 신작을 8월 31일부터 공개한다.